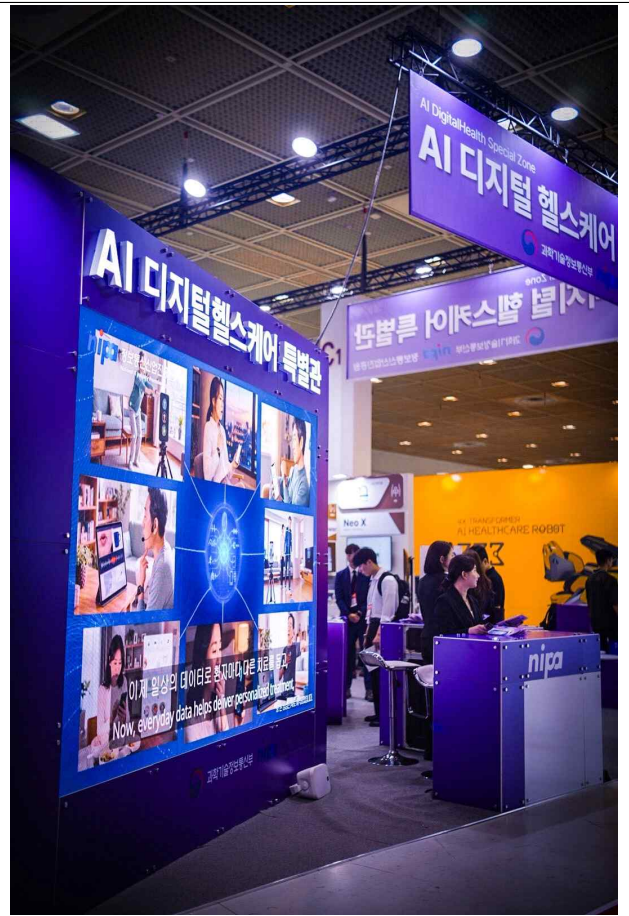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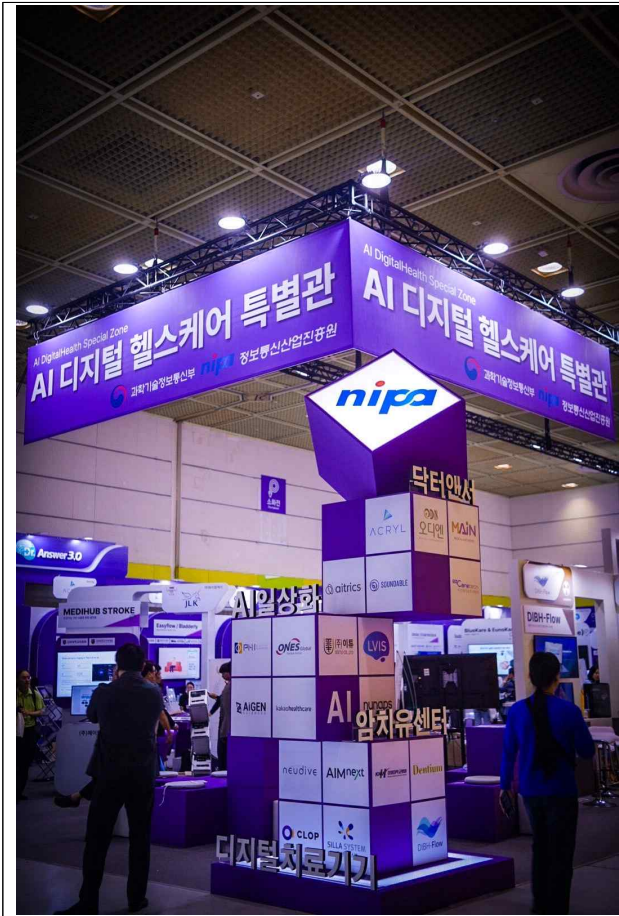


보도 일시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포 일시	2026. 8. 28.(금) 10:00	담당 부서	인공지능(AI)헬스팀
담당자	윤명숙 팀장 (043-931-5070) 박지혜 수석 (043-931-5402)	참고 자료	사진 있음■ 사진 없음□

- "실증에서 도입으로"... 투자·도입·협약 41건 결실 -
- 국내 의료기관·제약사와 1천7백여 건 상담, 해외 구매자 매칭 65건 진행 중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에 조성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AI Digital Health Special Zone)」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흥원이 지원해 의료 현장 실증을 거친 34개 기업이 115평 규모로 참가했다. 닥터앤서3.0(9개사), 디지털 치료 기기(5개사), 초거대 인공지능(AI) 보건의료(4개사), 공공의료·클라우드(4개사), 뇌 발달 질환(5개사, 대구), 인공지능(AI) 암 치유센터(7개사, 강원) 등 6개 사업의 성과가 한 자리에 모였다.
- 진흥원은 2018년 주최기관인 대한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행사(KHF)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특별관은 기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수요 발굴과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 학술 세미나 연계를 통해 실증 성과가 실제 병원 도입과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 혁신상 10점 중 6점, 특별관 참여기업이 수상 】

□ 개막식에서 시상된 혁신상 총 10점 가운데 6점을 특별관 참여기업이 받았다.

※ 분야별 참여기업 및 전시제품은 <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제이엘케이(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통합 플랫폼), 카카오헬스케어(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소아·청소년 건강상담 서비스), 에이아이트릭스(위암·대장암 합병증 예측 솔루션), 지오맥스소프트(낙상·이상행동 감지 스마트미러)가 수상했다.
- 대한병원협회장상은 신라시스템(뇌종양 진단·소견 생성 솔루션), 히포티앤씨(우울증·양극성장애 디지털 치료 기기)에게 돌아갔다.

**【 사흘간 진흥원 특별관 방문자 수는 5천여 명에 달해...
"구매·실증 권한 있는 방문객이 찾았다." 】**

□ 참여기업이 자체 집계한 '후속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주요 상담 실적은 1,75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외 기관 상담은 65건이다.

- 특별관을 찾은 기관도 상급종합병원부터 지방의료원, 요양·복지 시설,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사까지 폭이 넓었다. 시야인사이드는 주요 병원의 정보통신·디지털, 연구개발, 의료·임상 실무 의사 결정권자와 접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뉴다이크의 상담은 의료 기관과는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진료 프로세스 연계 방안을, 국내외 유통·제약 기업과는 신규 판로와 공동 마케팅 협력을 논의했다. 뉴냅스는 "디지털 치료 기기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려면 협력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네오폰스는 "다른 전시회와 달리 구매·실증 권한이 있는 방문객이 찾아왔다."라고 평가했다.

□ 투자·도입·실증 협의 31건, 업무협약(MOU) 체결 5건 진행 중

- 행사를 계기로 발생한 구체적 성과는 도입·실증 협의 31건, 업무협약(MOU) 체결 5건, 투자·유통 협력 5건 등 41건으로 집계됐다.

【 독일 작센주 병원단이 부스로... 해외 매칭 30건 진행 중 】

□ 해외 성과도 두드러졌다. 행사 첫날 독일 작센주 디지털 헬스 사절단 24개 기관이 특별관을 찾았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그룹, 성 엘리자베스 라이프치히 병원, 브이지이(VGE) 미텔작센 등 급성기·종합병원부터 작센주 법정보험의사회(KV Sachsen), 작센주 의사회

(SLÄK), 작센주 보건·복지·사회통합부(SMS), 작센주 경제개발공사까지 의료·보험·정책 전반의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됐다.



○ 이 자리에서 코어라인소프트는 아스클레피오스, 크라이스크랑켄 하우스 프라이베르크, 성 엘리자베스 병원 등 3개 병원 대표진에게 설루션을 소개했고, 유럽법인을 통한 현지 병원 방문 및 폐암검진 사업 도입 미팅을 앞두고 있다. 독일 측 관심은 사절단에 그치지 않고 주한독일상공회의소(AHK) 관계자와도 별도 상담을 진행했다.

□ 아시아 지역에서도 30건의 해외 구매자 매칭이 진행 중이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태국 에이아이 메드테크(AI MedTech)와 현지 병원의 인공지능 도입 검토를 데모 단계까지 진전시켰고, 베트남 에보텍(EvoTek)과는 공동 시장 진출을 논의한다. 이지케어텍은 태국 방과콕 병원그룹, 아크릴은 홍콩 아시아메디컬그룹, 파이디지털헬스

케어는 산뉘(三諾) 바이오센서와 접촉했다. 뉴냅스는 두바이 디엔에이 지티엑스 랩(DNA GTx LAB), 루마니아 신라이 통제비티 인스티튜트, 호주 디스팅티브 엣지 서포트 서비스 등 3개 해외 유통·총판사와 상담했고, 중국 진출도 현지 그룹과 논의했다. 이밖에 (주)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셰이(SHAIE)와 현지 병원 기술 검증(PoC)을, 하이는 튀르키예 재활의학센터 피지콤(Fizikom)과, 이튬는 룩셈부르크·루마니아·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 진흥원은 특별관 참여기업 가운데 프로그램을 추천해 지원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공공 프로그램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 진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간접 지원 형태다.

【 사전 매칭 42건 · 학술 세미나 연계... 참여기업 70% "내년에도 참가 희망" 】

- 진흥원은 전시에 앞서 국내외 구매자와의 사전 사업자 연계를 운영해 21개사, 42건의 상담을 성사했다. 전북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의료원, 코오롱제약, 영월의료원, 강릉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이 참여했다.
- 8월 21일 대한병원협회 정기 학술 세미나에서는 제이엘케이 김동민 대표이사가 '뇌졸중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상 워크플로 개발'을, 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이사가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임상 성과, 현장 적용'을 발표하며 전시 성과를 학술 논의로 확장했다.
- 참여기업이 집계한 언론 보도, 현장 인터뷰는 67건에 달했다.

【 "개별 설루션을 넘어 병원 전체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

- 진흥원 박윤규 원장은 "이번 특별관은 개별 기술의 성능을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실증을 마친 설루션이 실제 병원에 도입되고 해외로 나가는 길목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일회성 실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상 체계와 유지보수 예산이 통합된 장기 확산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병원에서 검증된 사례가 다른 권역 의료 체계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AI)헬스팀 윤명숙 팀장(☎043-931-5070), 박지혜 수석(☎043-931-5402)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